



## 암·치매·아토피 등 사람 치료제, 반려동물도 먹는다

### 🐾 반려동물을 위한 바이오

#### 〈上〉판 커지는 동물의약품

반려동물 사망 원인 1위 '암' 면역항암제·당뇨병 치료제까지 제약·바이오社 신약 개발 가속 동물 적용으로 약효검증 효과도

'펫코노미' 시대가 본격 열리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에서부터 치료약, 수술 등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산업이 단순 사료와 간식을 넘어 치료제와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 펫 보험, 정보통신기술(ICT) 까지 무한대로 확장되는 추세다. 나의 형제이자 자식인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반려인들은 이제 아낌없이 지갑을 열며 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찾아가고 있다.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을 3회에 걸쳐 조망해 본다. /편집자 주

사람을 위한 치료제가 반려동물을 위한 치료제로 재탄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일 만큼, 반려견과 반려묘는 나이가 들수록 치매, 암, 당뇨와 같은 사람의 난치병을 그대로 앓는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현재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을 반려동물에 적용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약효와 안전성 검증 효과도 있

어 일석이조 전략으로 꾹힌다.

◆ 사람 치료제, 반려동물이 먹는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동물의약품 시장을 정조준해 '항암' '인지기능장애 증후군'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에 나선 상태다.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전문 회사 박셀바이오는 지난 8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첫 반려견 전용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박셀바이오는 현재 반려묘용 면역항암제도 개발하고 있다.

HLB생명과학은 인체용 신약 핵심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을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로 개발하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HK이노엔은 동물용 아토피피부염 치료 신약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HK이노엔은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피부에 바르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IN-115314'의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용 치료제는 같은 후보물질을 사용해 경구용으로 개발된다.

지엔티파마 역시 현재 시판 중인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를 반려견 뇌전증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는 임상을 진행 중이다. 제다큐어의 주성분은 '크리스데살라진'으로, 지엔티파마는 현재 같은 물질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투여하는 인체 임상 2상을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필리핀 라구나주 칼럼바시에 위치한 삼성전기 필리핀법인(SEMPHIL)을 찾아 MLCC 제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스

행하고 있다. 반려견이 제다큐어를 4주 이상 복용하면 인지기능과 사회활동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전국 1870여개 동물병원에서 판매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국산 36호 당뇨병 신

약 '엔블로'를 반려동물 당뇨병 경구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의 간판 제품들이 동물용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社告



#### 메트로경제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반려동물 위한 헬스케어

〈메트로경제〉가 10월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를 주제로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 가량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란 질문을 새로 추가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을 위한 음식과 건강관리식품에서부터 치료제,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치약, 샴푸와 같은 세제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치료제가 동물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반려동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의 기술동향을 점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가구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 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 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기조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 강 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拉斯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대표  
임윤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 쇠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2024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metro

###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 SE' 살펴보니

## ‘4.9mm’ 역대급 얇은 폴더블폰… AI 기능도 강화

2억 화소 카메라·힌지주름 개선  
퀄컴AP스냅드래곤8 3세대 탑재



삼성전자가 역대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폴드 스페셜 에디션(SE)'을 공개하고 스마트폰 시장 1위 탈환에 나선다. 최근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다양한 AI(인공지능) 기능을 더한 고급형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될 기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새로운 갤럭시Z 폴드 SE 제품은 21일 삼성닷컴을 통해 공개하고 25일 출시

12초 분량의 영상에선 초록색 문틀 아래로 편지봉투를 밀어넣는 장면이 나온다. 봉투를 열면 '갤럭시 Z폴드'와 같은 패블릿형(폰+태블릿) 스마트폰에 'You're invited ('당신은 초대받았다')는 문구와 함께 '2024년 10월 21일' 이란 날짜가 적혀 있다. 예고영상에서는 문틀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신제품이 얇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갤럭시 Z폴드 SE는 삼성전자의 역대 폴더블폰 가운데 가장 얇으며 기존 갤럭시 Z폴드6보다 더 가볍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폰 출시 시기는 이례적으로 빠

르다. 기존 제품인 갤럭시Z폴드6를 내놓은 지 불과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이기 때문. 그간 삼성전자는 하반기 초 갤럭시Z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듬해 초 신형 갤럭시S 시리즈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하반기 내 기존 제품에 이어 플래그십 제품까지 연이어 공개한 셈이다.

이는 최근 무섭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 업체들은 얇은 두께는 물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을 장악하고 나섰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버스티비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명태균, 25일 행안위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 /사진 뉴시스
- ▲ 북한, 새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 출범 예 업포

- ▲ 민주 "금투세 입장 국정감사 끝난 후 논의할 듯"
- ▲ '소방관 한 끼 3000원대' 논란에 소방 청 급식환경 개선



- ▲ 유승민 "윤·한, 보수 몰락 책임… 특검 결단해야"
- ▲ 해병대, 필리핀서 '2024 카만닥 훈련' 참여 /뉴시스